

가업 잇는 '청년농' 전남농업 미래 연다

'유기농 인증' 23명중 8명

2세대가 가업 물려받아 정착

청년농 10명중 4명 친환경농업

전남도내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역대 소득을 올린 유기농 1세대로부터 가업 승계 또는 후계 수업을 받고 있는 2세대 청년농이 증가 추세에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성공해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받은 23명 중 35%인 8명의 2세대가 가업을 물려받아 농촌에 정착한 사례가 늘면서 IT

세대인 젊은 농꾼들이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남 친환경농산물 인증 청년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청년농 8081호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청년농은 3306호(37%)로 청년농 10명 중 4명이 친환경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50년 유기농 대가인 보성 전양순씨가 운영하는 '우리원농장'의 경우 경기도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딸 강선아씨가 모친의 권유로 13년 전부터 농촌에 정착해 생산·가공·유통·수출·교육까지 1인5역을 담당하게 해내고 있다.

강씨는 '우리원' (<http://www.wooriwon.com>)과 마켓컬리 등 오픈마켓을 통해 '강대인 생명의 쌀'과 매실 액기스 등 유기농식품을 판매해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는 미국 뉴욕 온라인몰 '김씨마켓'을 통해 수출도 준비 중이다.

해남에서 유기농 배추 등을 30년째 재배하며 연간 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기농 명인 김성래씨 아들 김산씨는 지난 2018년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인 올해 자신의 이름으로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가공식품 생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무안에서 유기농 고구마를 40년째 재배

중인 유기농 명인 김용주씨의 아들 김명규씨와 딸 김은호씨는 지난 2017년부터 고구마 재배는 물론 '행복한고구마' (<https://happysweet.co.kr>) 쇼핑몰 고객관리와 홍보, 판매 등을 담당하면서 역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역대 부농의 경우 유기농업이 비전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 자녀에게 자신 있게 권장하는 것 같다"며 "유기농업을 가업으로 승계받은 청년 후계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100년 전통의 유기농 명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수온상승 전남 양식어장 5635개소 질병예찰 강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원장 박준택)이 수온 상승시기를 맞아 도내 수산생물 양식어장 5635개소를 대상으로 질병발생 및 기생충 감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을 강화했다. 수온 상승 시기인 5월부터 양식생물에 세균 및 기생충이 번식하기 쉬워 ▲연쇄구균, 비브리오 등의 세균성 질병 ▲스쿠티카충, 백점충 등의 기생충

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해마다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질병 예찰을 위해 지역별 예찰담당 공무원 14명을 임명, 올해 처음 공수산질병관리사 15명을 위촉해 매월 4회 이상 양식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질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제공>

전남소방본부

이동심리상담차 배치

소방관·도민 심리 치유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동심리상담차'를 현장에 본격 배치했다. (유)이베이코리아와 소방동우회가 후원한 이동심리상담차는 소방관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토대로 재난현장에서 상주하는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해소와 마음건강 증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도민의 심리상담장소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경력특례 심리상담사 15명을 채용해 다양한 심신안정 프로그램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재난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남 지역 특성상 넓은 관할구역과 상당한 업무량으로 인해 상담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동심리상담차를 활용해 소방공무원과 도민을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유)이베이코리아와 대한민국의향소방동우회가 후원한 '이동심리상담차' 전달식을 가진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전남도의회 매실농가 돕기 구슬땀

전남도의회(의장 이종재) 직원 70여명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 진월면 매실농장을 찾아 영농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눠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고갑식(70세)씨 농가와 오시리 홍성수(80세)씨 농가에서 수확이 한창인 매실 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일손 돕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눠 광양시 진월면 진정리 고갑식(70세)씨 농가와 오시리 홍성수(80세)씨 농가에서 수확이 한창인 매실 수확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남도의회 제공>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전남도 올해 말까지 접수

전남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모집에 나섰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차감을 비롯 겨울철 난방에 따른 전기·가스 요금 차감과 등유·연탄·LPG 등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중증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부터 동절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오는 7월부터 9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겨울 바우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여름 7000원 겨울 8만8000원 ▲2인 가구는 여름 1만원 겨울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2000원 등이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난해 3만여 가구가 냉난방비 지원을 받았다"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신청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큰 호응

4월부터 1만9000호 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전남도의 농기계 임대료 인하정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광역단위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4월부터 7월 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 제외) 농기계 임대료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이후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실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한시적 감면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최근 15일까지 전남도내 임대농기계 이용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용 농가수는 1만9000호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6% 급증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5억2000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남도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기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올해 도비 13억원 등 총 107억원을 투입, 주산지 발전물용 농기계와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 등을 구입해 임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전남도 양돈농가 돼지열병 백신 접종 독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치사율이 높은 가축전염병인 '돼지열병'으로부터 전남을 지키기 위해 양돈농가들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

돼지열병은 감염돼지와 직접 접촉하거나 경구감염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지난해 타지역 양돈농가에 큰 피해를 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유사하게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는데다 높은 치사율을 보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달리 돼지열병은 백신접종만으로 양돈농가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돼지열병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을 끝으로 사육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남도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독력을 위해 전남도내 양돈농가 사육돼지를 비롯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용샘점 바로가기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 출 기 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 환 방 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 출 한 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 출 금 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